

## 제66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 오직 말씀에 의지 땅 끝까지 복음전파



의장  
김광인 목사  
총회장

교단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대강전에서 열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재정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남지교회장 황용연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1:16-17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시대에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복음의 신령이 되기 위해, 교단과 신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교단 중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교단 총회장 김광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후 김광인 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으며 총무보고로 엄기설 목사가 2017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 일본 정지방회와 부흥사회 산행기도회 및 연수 세미나,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 회개와 구국기도회 참석 등의 내용을 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보고, 회계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는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입명 청원, 교회주요변경 보고, 교역자퇴직 보고, 교회폐쇄 청원 등의 사안에 대해 결의되었으며 기사사항으로 교단배치신



축도  
박영찬 목사  
중경총회장



폐회기도  
이창재 목사  
중경총회장



사회  
엄기설 목사  
총무



대표기도  
황용연 목사  
경남지교회장

청현황, 노숙자선교위원회 지원요청, 부흥사회 산행기도회 및 연수세미나, 총회목대원 2017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사이버신학교 졸업예배 점검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중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원배석



## 목회대학원, 총회신학교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 감당 다짐

교단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7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11월 27일(월) 목대원 대강장에서 드려져 한 학기동안 민화의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학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목회대학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벰 4: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은 입술의 열매와 삶 속에서 선과 덕을 세우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와 감동받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사명감당을 위해 진력해온 목대원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목대원 원우회장 이종

현 전도사의 한금기도,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신학교 학생들은 12월 1일 총회신학교 대강장에서 2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부름받은 나신 주의 종의 사역을 충직



설교  
임종달 목사  
목대원 원장



축도  
이종달 목사  
중경총회장



대표기도  
최병진 목사  
목대원 교수



사회  
윤기석 목사  
목대원 사무국장

하게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목회대학원, 총회신학교 2017학년도 사은회

###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교단 총회 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7학년도 사은회가 지난 11월 27일(월) 오후 4시 쿠푸루



우 오목교에서 열려 한결같은 사랑으로 원생들에게 말씀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격려했던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는 고전 13:1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권고의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에 임하는 졸업생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졸업생들은 스승의 노래를 부르며 스승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랑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사은회는 목대원 교수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총회신학교 졸업생들은 11월 30일(목) 오후 목동 다 이부페시아에서 사은회를 갖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다.

프루도초장  
나  
말씀은  
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롬 4:16~25)

믿음에 대하여 논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롬 4:11)이라고 하였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9)고 하였습니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징조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이 75세에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그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준행해야 할 것에만 전심전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자신과 그 아내 사라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기망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본체이므로 자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즉시 하나님께 서 지시할 명으로 나아갔습니 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

있습니 다. 독자 이사를 반제로 드려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반제로 드린 이사를 다시 살려서 이미 약속한 믿음을 성취케 하실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좇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하신 지혜로 약속하신 믿음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믿음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하였습니 다. (롬 4:17)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믿음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자세하고 다양하며 풍성한 약속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준행하는 데 전념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능히 이루실 것이므로 미리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

### 2017년도 목대원 하반기 계절학기



임종달 목사  
목대원 원장

2017년도 목대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12월 4일(월) 오전 11시 30분 총회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드려져 맹추의 속에서도 학구열에 불타는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교단 중인 목회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대표기도 및 성경봉독, 교단 중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6:11-20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무

장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올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하리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계절학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광고, 김용덕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교단 중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사도행전 연구’를 시작으로 최병진 교수의 ‘구약역사와 성경적 성리학 연구’, 이용주 교수의 ‘목회실천에 관한 연구’, 김바울 교수의 ‘구약사적 설교신학 연구’, 강태진 교수의 목회상담학 연구가 7일(목)까지 3차 4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어 큰 깨달음을 얻고 헌신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 한교연,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법인명 변경

교단장회의측의 불법성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하기로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교단장회의 측과의 세부 협의 문제로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1월 29일(수) 한국기독교연합 회관에서 가진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한교연은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통합을 추진했던 교단장회의측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황인찬 목사는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7월 27일 제6-2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본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교단장회의측과 통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교단장회의측에서 본 회의의 통합추진과정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임시정관 처리문제와 법인 인수에 따른 세부 협의를 거부하고 한교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본회 명칭 변경은 이미 지난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교



단장회의측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이미 결의된 사항을 반복하기보다 향후 한국교회 전체의 통합을 바라는 본회의 변함없는 의지를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밝히는 뜻에서 그동안 6회기 동안 써온 한국교회연합 명칭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정관 변경 건을 심의하며 정관 제1조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한 회원 및 당연직의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법인이사는 반드시 대표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되 7회기 차기 후보자가 없을 때는 순연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통과시켰으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됐다.

##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제22차 정기총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유임, 일부 임원진 개선



1993년 1월 23일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여년간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는 지난 11월 29일(수) 여진도호텔 2층 루이 시기념관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

운 한 회기를 준비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예정활동정동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기도총회 증경총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예정중앙개혁총회 총회장 박길손 목사의

성경봉독(딤후 2:11-13), 예정합동부흥총회 총회장 김권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정기도총회 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 목사, '사단법인 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예정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한 후 예정개혁교회총회 총회장 박향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이사장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고 이사는 김권현 목사, 노종관 목사, 박형렬 목사, 강희준 목사, 최옥석 목사, 임정태 목사, 양정은 목사, 김인호 목사, 이영춘 목사, 서경숙 목사, 박광원 목사, 하용준 목사, 전대식 목사, 김영의 목사를 유임하고, 감사는 한성옥 목사를 유임하고 예정열방총회 총회장 김분희 목사를 새로운 감사로 추대했다.

# (사)한국기독교언론법인, 설립 감사예배

교계 언론 최초의 법인으로 설립인가 받아

한국기독교언론포럼(회장 홍순만)는 지난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사)한국기독교언론법인 설립 및 임원·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언론협회는 앞으로 기독교언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언론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국기독교언론법인은 교계 언론 모임 중 최초로 법인인가를 받은 단체이다.

(사)한국기독교언론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준오 목사는 "법인을 통해 기독교언론들을 외부의 불의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며, 언론 선교에 앞장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부 예배는 언론협회 총무 이재환 국장(개혁공보)의 인도로 김우제 장로(맹단협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



(백석대)의 측가에 이어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말씀을 증거했다.

엄 목사는 '생각하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언론법인이 기독교 언론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종교인 과세만 하더라도 심각한 종교 편향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일에도 누구보다 기독교 언론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줘야 한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언론 종사자들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노숙인에게 밥퍼사역

서울역 600여 명에게 사랑 실천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원장 장현일 목사, 이하 CLA)가 CLA총동문화회 오수철 장로와 함께 지난 11월 22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 해돋이마을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600여 노숙자들에게

게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밥퍼사역을 진행했다.

유독 추웠던 이날 '크리스찬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모인 CLA 11기 회원들은 총동문화원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되어 노숙 형제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정성껏 대접했다.

밥퍼사역에 앞서 진행된 '서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CLA 11기 수요 밥사랑 나눔예배'는 김예정 목사의 인도로 홍순화 장로가 기도하고, 장현일 목사(생명나무교회)의 잠 19:1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전행을 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조혜련 집사(명승교회)의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현일 목사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반드시 값있게 받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 나라사랑국민연합 출범예배 드려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매주 수요일 기도회 가져

나라사랑국민연합은 지난 11월 28일(목)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출범예배를 드리고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를 추대했다.

이날 출범예배는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의 사회로 상임대표 유영옥 박사(국민대 교수)의 '북핵문제에 대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시국강연, 고분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의 대표기도, 총재 권정희 목사(전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의 성경봉독, 대표총재 서대천 목사의 찬양 17:40-47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가장 완벽한 무기는 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자문위원 김흥기 목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테일 목사가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이병순 목사가 '기독교기관과 대표를 위하여' 기도

를 인도했다.

이날 축사는 대표고분 민경배 박사(연세대 명예교수), 김진웅 목사(갈빈대 이사장),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맡아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고분 박재현 목사는

축사로서 자리를 빛냈다.

출범예배는 계속해서 상임회장 한상수 장로의 경과보고,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의

대변소개 및 추대장 수여, 나경화 선교사의 축가, 사무총장 김영기 목사의 광고 후 대표총재 서대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나라사랑국민연합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단체발전을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



##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위해 기도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송진태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5가 한경직기념교회에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란 공동기도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이태희 목사의 사회로 최연복 목사의 기도, 찬양사역자 변정미 집사의 특별찬양, 시인 장충열 집사의 성서낭송, 안민국 목사(육군 26사단 성불무리교회 담임)의 갈 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시온찬양운동신학원 이순기 원장의 위임, 김광미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이철



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총재 송진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기도는 이철민 목사의 한국교회를 위한 호소가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교회의 본질회복, 영혼구원 성령충만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정자 목사가, '차별금지법 반

대, 이슬람(IS) 방지를 위하여' 상임회장 최은유 목사가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장 김광미 목사가, '북핵방지, 북음통일을 위하여' 상임회장 배기철 목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세계선교를 위하여' 상임회장 홍종성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 민족복음화부흥협, 제36회 정기총회

신임대표회장에 라미화 목사 등 임원선출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김용상 목사)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3연수실에서 열려 신임대표회장에 라미화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김

두형 목사의 사회로 협회기 입장, 여성상임회장 임종순 목사의 기도, 상임총무 김희숙 목사의 성경봉독, 애능단장 김해란 목사의 특송, 총재 김용상 목사의 담 4:6-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주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자문위원 최정숙 목사가 '나라와 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상임회장 이형규 목사가 '본 협의회 총재 및 대표회장을 위하여', 강사단장 김아브라함 목사가 '본 협의회 회원들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 부총재 주화순 목사의 축사, 상임총재 우광순 목사·부총재 이귀형 목사의 격려사 후 부총재 홍대선 목사의 축도로 1부에 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는 대표회장 홍화선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책, 전회의록 낭독 후 각부보고를 유인물로 받기로 했다. 이어 회칙 교정 및 개정, 신인건 토의 후 임원선출을 통해 제36대 라미화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 예수교대한웨슬레회 제34차 정총

국내외 선교강화 등 교단발전책 수립

예수교대한웨슬레회(총회장 정동식 목사)는 지난 1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소재 총회본부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선교강화 및 교단발전을 위한 제34회 개회 제34회 기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서영민 목사 사회로 김재형 목사의 기도, 서영민 목사의 담후 4: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네 직무를 다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서 목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

의 말씀을 증거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비록 교단은 작지만 작은 것을 들어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처럼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여 주의 나라확장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본 회의는 개회선언 대의원호명에 이어 임시 회의록 서기 및 투개표위원 선출 후 각부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했다.

이날 임원선출은 부총회장에 서영민 목사를 선출하는 한편 나머지 임원은 유인물로 하고 그 외 사업은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기로 했다.

한편 웨슬레회총회는 이어 광주교회 담임 차재성 전도사의 목사안수식도 거행했다. 안수식은 교단부총회장 서영민 목사의 집례로 유현 목사의 기도, 서약, 안수, 공포, 목사안수예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삼산순복음교회(담임 최동순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윤배 목사(중앙선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육백전 목사(소생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최동순 목사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삼상 7:3-6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일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비로 모이게 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 연애와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와 우리 민족이 살길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설교했다.

이어 김진호 목사(진리와사랑의교회)의



한금기도와,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조재호 목사의 재무보고, 민병훈 목사의 회계보고, 김용목사의 총무보고로 마치고, 곧이어 3부에는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신영철 감사(한국 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의 ‘충북인권조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잘못된 인권이 동성

애를 옹호 조정하여 죄악을 더욱 장광케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와 교회를 무너트려 결국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불행케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한 일 줄 알고 죄악을 옹호하는 나쁜 인권을 규탄하며 바른 인권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삼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기점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사랑과 교제 나눠

##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흥현철 목사)는 지난 11월 20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주님의교회(담임 조정화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갖고 각종 지방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윤해원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대표기도, 안병성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왕상 18:36~4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에 이어 통성기도 후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한금기도와 최성진 목사(순신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 순서에는 지방회장 흥현철 목사가 지난 9월 18일~22일 베트남에서 열린 추계수양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다.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들은 순복음주님

의교회(담임 조정화 목사)에서 대접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오후에 평포산 황도길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자

##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2월 5일(화) 오전 11시 새김전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12월 월례회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화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광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안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15: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비울의 인정받은 믿음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도 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들을 위해, 총회장과 임원들을 위해, 지방회 목회자



들과 가족을 위해, 동상에 합법화 저지와 차별금지법 무산을 위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개헌저지를 위해, 성직지향과 동성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반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한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공교회)의 드린 예물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증경지방회장 진영감 목사(주천양교회)의 기도, 지방회장의 사회로 동계 중·고·청년 수련회 일정을 논의하고, 회무처리를 진행하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전달 사항을 전하고, 직전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사말과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 새김전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회기에 참여한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 윤철희 목사, 전국생활체육 장사씨름대회 우승

##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1월 4일(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

회 전국 생활체육 대장사 씨름대회’에서 지방회 소속 윤철희 목사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회 회계인 윤철희 목사는 경신에서 개최해서 관계전도를 맺기 위해 씨름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번 단호재 씨름 시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을 차지했다. 3년 정도 몸이 안 좋아 씨름을 못했던 윤 목사는 이번에 동호회에서 연락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기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참가했다며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나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은 나의 목적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 또한 영광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목사의 우승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건증을 부탁하는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회 행사 가운데 전도 건증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가서 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김양인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산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빛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대표고문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직전총회장                | 총회장                 | 지도고문                | 지도고문                | 증경총회장               | 증경총회장               | 회장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
| 조용목 목사<br>(은혜와진리교회) | 김상용 목사<br>(청주중앙순복음교회) | 유봉수 목사<br>(은혜와사랑교회) | 진동용 목사<br>(새소망교회)   | 김용덕 목사<br>(영동제일교회)    | 임종달 목사<br>(천주애인교회)  | 최광덕 목사<br>(일신은혜교회)    | 이창재 목사<br>(진부제일교회)    | 김인규 목사<br>(은혜와진리교회) | 조남영 목사<br>(가림순복음교회)  | 김양인 목사<br>(복음제일교회)  | 김인산 목사<br>(창신교회)    | 정부용 목사<br>(대림별빛교회)  | 엄기섭 목사<br>(은혜와진리교회) | 김희태 목사<br>(간현교회)    | 신재영 목사<br>(새김전교회)   | 임영환 목사<br>(연천순복음중앙교회) | 오승욱 목사<br>(천안사복교회)  |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부회장                   | 부회장                   | 상임총무                | 상임부총무                | 상임부총무               | 상임부총무               | 사무국장                | 실무총무                | 실무총무                | 실무총무                | 실무총무                  | 서기                  |
| 황용연 목사<br>(은혜와진리교회) | 김병목 목사<br>(금신순복음교회)   | 정성현 목사<br>(영광교회)    | 백영자 목사<br>(복음순복음교회) | 신동숙 목사<br>(순복음임마누엘교회) | 서정복 목사<br>(남원중앙교회)  | 김기진 목사<br>(자연순복음중앙교회) | 최정식 목사<br>(순복음복원교회)   | 김진수 목사<br>(제주한미음교회) | 윤혜영 목사<br>(순복음주찬미교회) | 김배울 목사<br>(순복음진리교회) | 정광호 목사<br>(동문순복음교회) | 조선남 목사<br>(대림별빛교회)  | 김병호 목사<br>(순복음특별교회) | 박홍일 목사<br>(오성시영교회)  | 성기찬 목사<br>(동문순복음교회) | 오세준 목사<br>(순복음참좋은교회)  | 임형순 목사<br>(순복음아멘교회) |
| 재무                  | 회계                    | 감사                  | 감사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                  |
| 조은혜 목사<br>(순복음빛교회)  | 양은애 목사<br>(성경교회)      | 김종연 목사<br>(은혜교회)    | 최남성 목사<br>(동문순복음교회) | 윤성수 목사<br>(진주은혜교회)    | 권택선 목사<br>(순복음아멘교회) | 김연옥 목사<br>(영복한교회)     | 이희숙 목사<br>(진주순복음중앙교회) | 임영철 목사<br>(순복음중앙교회) | 홍현자 목사<br>(시립광명교회)   | 조병희 목사<br>(기림순복음교회) | 정환우 목사<br>(순복음빛교회)  | 김명주 목사<br>(순복음중앙교회) | 서범석 목사<br>(가나안성령교회) | 옥보에 전도사<br>(소망중앙교회) | 정예서 목사<br>(예수영기교회)  | 김남수 목사<br>(빛과생명교회)    | 최승수 목사<br>(순복음중앙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생명의 말씀



심재덕 목사

· 인천지방회 중정회장  
· 주안복원교회 담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행로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인간은 세 종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과거회상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의 추억을 더듬고 인생을 황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안주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목표 없이

현재 비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때마다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회상형이나 현실안주형은 인간의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감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와 현실을 딛고서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자체가 지람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공하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진실한 가치관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로 살아간다면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적 목적으로 산을 때 물질은 나 자신을 노예화하여 버립니다. 참으로 창조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는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았습니다.

**둘째,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

라” (고전10:32-33)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결국은 유익도 되지 않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 되어진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것인데, 이 말은 남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저희가 구원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 예수 믿게

하여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기회가 오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며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려는 불타는 심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동 정

영덕군기독교聯 회장에 김주원 목사



영덕군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월 22일(수) 오전 11시 영덕읍 교회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김주원 목사(영덕읍 교회)를 선출했다. 김 목사는 “영덕 복음화와 해외선교, 회원 단합 등에 역점을 두고 연합회를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차인표, ‘헤븐퀘스트’ 내년 봄 개봉



크리스천 배우 차인표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헤븐퀘스트 : 필그림스 프로그레스(Heavenquest : A Pilgrim’s Progress)’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헤븐퀘스트’는 존 번연이 1600년대 발표한 소설 ‘천로역정’을 각색한 액션 판타지물로 차인표는 제작과 배우로 영화에 참여했다.

원팔연 목사, 원로목사에



전주바울성결교회는 지난 11월 26일(주일) 전북전주시 완산구 동교회에서 원로 목사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33년간 담임했던 원팔연 목사를 원로목사에 추대하고, 후임에 경기도 용인 비전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신용수 목사를 세웠다. 전주바울성결교회는 복음전파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장홍, 유종현 대표회장 선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11월 21일(화) 양화진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신임 대표회장에 유종현 목사(예장 대신·군포 성령교회), 상임회장에 송태섭 목사(예장 고려개혁·수원 경원교회)를 각각 선출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에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소위 ‘종교인 과세’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비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느냐부터 정리해야 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연보(報輔)되어지는 돈은 신자(信者)들이 하나님을 신앙(信仰)하여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獻身)하여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보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된다.

그 사용도 종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기관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교회에서 받는 경비가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체이며, 종교인은 교회에서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운영주체인 교인들이 종교인에게 소득개념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백년 양보하여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조세주의 원칙을 인정하여 정부가 과세하려고 한다고 하여도 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행 예정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드러난 ‘종교인 과세 기준’은 공평성과 공정성까지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시한 과세 기준 항목에 의하면 불교는 27가지, 천주교 37가지, 원불교 27가지, 천도교 17가지, 유교 17가지,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고 한다. 이 같은 불공정에 대하여 종교인은 물론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는 기독교의 목회자에 대한 ‘억압’과 종교 활동을 제야하려는 수단으로 ‘종교인 과세’가 남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제20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내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자(信者)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 가운데, 그 용도에 따라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여타의 경비사용과 활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하위법’으로 정하여 과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승복할 수도 없다.

종교인의 모든 활동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 무려 35가지 항목에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선교(宣敎)와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선교(宣敎)나 종교 교육도 국가에 세

금을 내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히 헌법을 조롱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종교인 과세, 그 내용도 종교탄압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데 이는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너무도 가벼이 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나라 종교인의 80% 이상이 기초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육신의 삶을 위한 방편이며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이라면 과연 그런 환경을 아찌 감내한다는 말인가? 종교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하심타회한 대화와 소통보다는 정부가 하려는 방향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니 이해하고 따라야 할 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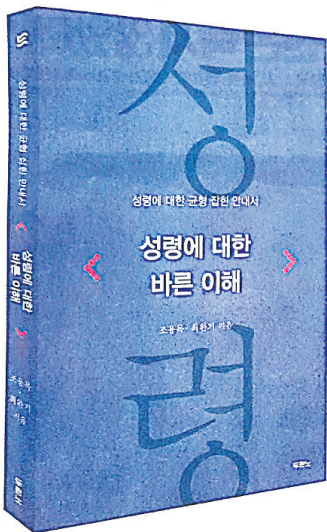
종교인들은 국가를 위한 기여라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재도 많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합하지 않은 세목으로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시된 종교인 과세법은 안 된다는 것이 종교인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종교인 과세의 해법은 따로 있다. 미국처럼 성직자가 자신의 생활비에 대하여 세무 당국에 지진 신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그럼 종교계와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정부는 성직자 스스로 낸 세금만큼 나중에 혜택과 도움을 주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을 세금도 안 내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또 ‘과세법’보다 ‘사랑법’에 익숙한 종교인들을 줄지에 ‘탈세법’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정부는 제정된 법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헌적 법 시행으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진 책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연보(捐補)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가운데 신학적으로 정리 되지 않은 중요한 주제가 헌금에 관한 것이다. 헌금에 대한 명칭과 종류와 헌금의 정신 그리고 목적과 용처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시립을 돕기 위해 자 기 돈으로 직접 모금이나 선교에 참여하는 연보를 이해하지 못해 헌금시간에 연보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카톨릭은 지금도 헌금을 연보라고 한다.

연보(捐補)란 자기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회를 통해서나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직접 기부하는 것이다. 구약성경 대하 34:9.14에서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위해 연보를 하였고 신약성경에 연보는 13번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나팔 모양을 한 13종류의 연보레가 있었고 각각의 용도가 연보레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눅21:1-4절에 보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연보 레에 넣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헌금이라기보다 남을 도와주기위해 모금함에 돈을 모으는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보는 바울 서신 서에 주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선교사이고 순회목회를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개척한 여러 교회를 돌보아야 했다. 사도바울은 오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이 평균케 되기를 원했다.

고후 8:14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평균케 하려함이라" 바울은 구약성경 출 16:18-20 말씀은 인용한 고후 8:15 말씀에 이삭과 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이침 만나를 거두었을 때 오렐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다음날까지 쌓아두면 아침에 어김없이 썩어 버렸다. 그래서 담전6:17,18절에 부자들은 가난한자들을 위해 가까이 손을 펴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공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를 함으로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평균케 하려는 연보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을 전파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의 때를 사는 동안 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연보 즉 구제헌금을 거두는데 집중하여 힘을 쏟았으며, 바울은 고전 16: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분명히 연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빌 4:15,16), 성도들을 구제하며(롬 12:13; 고후 9:13)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는 것이다.(갈 2:10) 고후 9:5에 고린도 교인들

은 미리 함대로 지원하여 심시일만 연보를 거두었다가 바울이 방문하자 필요한데 쓰라고 내 놓았다. 요즘은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성도들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인 기독교방송이나, 선교사, 선교단체, 복지센터나 기독교NGO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또한 교회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보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처럼 내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조건 없이 사용하는 사람의 실천이다.

성경 마 25:31-46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은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와 갇힌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돈의 용처를 강조하셨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연보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잠언서는 경고한다. "가난한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평 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 28:27)

소돔이 왜 망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겹 16:49-50을 보면 소돔이 망한 이유가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초대교회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볼 줄 모르는 집단적 위기주의의 때문이었다.(행 6:1-2)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경제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 경제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선교와 구제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대명인 사랑 살리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 한국기독언론법인,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 체결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11월 27일, 한국기독언론법인(이사장 강준오)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복음신문, 개혁신보,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보, 기독교연합공보, 목양신문, 목회자신문, 서울매일신문, 월드미션신문, 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한국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기독일보, CDN 등 14곳의 기독교언론사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매주 발간되는 신문의 온오프라인 지면에 장기기증 미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5만여 한국교회가 생명나눔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본부는 26년의 해를 거

쳐하면서, 85만여 명의 장기기증등록지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장기기증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본부 등록자의 80%가 넘는 등록자가 기독교인 만큼 많은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가 이어졌다.

이같이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은 지금까지 5,000여 교회가 장기기증예배에 참여했을 정도로 뜨겁다. 특히 창립 26주년을 맞은 한국기독언론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뜨거운 생명나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만교회 1천만 성도의 생명나눔 예배 참여를 기대하며 교계에서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전국민의 10% 가량이 장기기증 희망 서약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독언론 통해 한국교회 건강한 방향 제시

### 2017 한국기독언론인의 밤 행사 개최



2017 한국기독언론인의 밤 축하행사가 지난 12월 4일(월) 오후 5시 A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기독언론이여! 백제의 결실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김진옥 목사(한국기독언론재단 상임대표 회장)의 사회로 임원순 목사(한국기독언론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기도,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김진옥 박사는 "영적으로 후퇴하고 어지러운 현실 사회 속에서 사립이 선행해야 할 것은 기독교 문화의 확산"이라며 "이러한 사역의 매진으로 수고하는 기독언론인들을 격려하고 업적이 뛰어난 기독언론인을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인사말을 전한 임원순 박사는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기독 언론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며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리잡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동원 목사(한국기독언론재단 고문)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렘 6:20)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례요한은 비판과 반대, 온갖 사탄의 공격이 난무한 때에 담대하고 힘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다"며 "기독언론은 정직해야 하고 보도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담대하게 할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준영 목사(평생목회 편집인)와 오수향 교수(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진행으로 2017대한민국기독언론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환영사를 전한 한은수 감독(한국기독언론재단 총재)은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구국기도회와 시국 선언,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중심에는 항상 기독언론이 있었다"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혼란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독언론인들이 은총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김경래 정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원로의회회장)는심사평에서 "기독언론의 사명은 본 회퍼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처럼, 한국교회가 주님을 고백하고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오늘 수상자들은 대한민국기독언론 발전에 공적이 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상을 수여하게 됐다. 개혁의 직필로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독언론인들이 다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태 정로(한국기독언론재단 대표회장)는 "기독언론의 지향은 규모나 영향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진리, 비전이기에 작지만 큰 언론임에 분명하다"며 "하나님께서는 기독언론이 교회 울타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이를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전했다.

취재보도대상은 국민일보 유영대 종교국차장이, 저널리즘발전대상은 기독교신보 박병복 편집국장이, 전문기자대상은 목회자사모신문 한선현 편집국장, 공로상은 파고다스튜디오 유영선 장로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총회,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감리교신학연구회 등이 주관 및 후원했다.



###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③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당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 PARTY FIESTA

# 파티 피에스타 뷔페



피에스타 뷔페에서는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에스타 뷔페에서는 돌잔치전문, 칠순 · 회갑, 각종행사 작은 결혼식

● 출장뷔페 ●  
(교회 예식 피로연, 개업식, 체육대회)

●● 편리한 교통!  
다양한 최고급 음식!  
7호선 독섬 유원지역 4번출구 앞 ●●

## 02)461-3300, 010-5327-766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고영권 목사)



##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양인 목사)



##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장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최병진 목사)



##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an@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김상웅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ASSEMBLIES OF GOD

홈페이지 : www.ucts.org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br>2. 소명의식이 있는 자<br>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br>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 특별한 시대 부흥사 사명 하나님의 꿈을 품고 헌신

## 교단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총회장  
김양인 목사



교단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교단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왼쪽)는 지난 11월 23일(목)~24일(금) 1박 2일 동안 광주광역시 목양제일교회(담임 총회장 김양인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가을산행기도회 및 부흥사 연수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산행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오승욱 목사(부흥사회 상임위원)는 빌4:4-7 말씀을 통째로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머물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들어가기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부흥사들은 광주 부흥사들에 올라 ①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②한국교회와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③교단발전과 정책위원장을 위하여 ④총회장

과 총회임원 및 교단 교회들을 위하여 ⑤교단 부흥사회의 부흥집회와 지비량 부흥회의 활성화와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 및 충만한 사역을 위하여 ⑥WCC와 종교대원주의자들과 동성애 동성혼 허용 및 차별금지법 입법시도의 강력저지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하산 후 목양제일교회에서 열린 부흥사 연수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고전 15:58 말씀을 통해 "특별한 시대에 부흥사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성령대방기도회에서는 부흥사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들이 초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부흥하도록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오전 예배에서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는 행 20:24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2차 세미나에서 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예수

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헌법 및 교리신조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목양제일교회 제직들과 광주지방회 소속 목회자들로부터 귀한 대접과 섬김 받으셨던 우리 부흥사들도 더욱더 섬기는 사역자가 될 것을 결심하며 따뜻한 교제와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부흥사회원들은 이번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혼란과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중추적인 시기에 먼저 부흥사들이 깨어서 각급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적환경을 안정시키고 각 교회에서 맡겨준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단의 확실한 영적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주어 헌신한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영적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2017년 프로축구선수초청 재능기부

만사소년축구단과 ... '보호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 대한민국축구선교회

대한민국축구선교회 대표 박애늑 목사(왼쪽)와 예하성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는 지난 11월 25일(토) 대전기양중학교 운동

장에서 만사소년축구단(전종호 판사)과 함께 2017프로축구선수초청재능기부를 펼쳤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순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산기성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장로의 대표기도, 박애늑 목사의 설교,

예하성 총남지방회 중경회장 소영진 목사(전 안산부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애늑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동참한 프로축구 선수들과 많은 돕는 분들의 헌신으로 이 같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나눔 행사를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축구선교회는 2012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를 시작으로 예산중, 안성중, 이천중, 광명중에서 축구부를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가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만사소년축구단과 함께 했다. 소년부의 대부, '보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부산기성법원)가 지난해 10월, 1호 보호청소년을 중심으로 결성한 팀으로 축구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현재 부산, 경남,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북 현대' 김신욱과 김민재가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애정 어린 사랑을 담아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신욱(전북현대/대한민국 축구선교회 선수총무), 강상우(포항스틸러스), 강승현(고양시민), 고부열(전북현대), 김민재(전북현대), 김예찬(고양시민), 서보민(포항스틸러스), 송수란(대전스포츠포토), 여민지(대전스포츠포토), 허준호(전북현대), 최동현(H에이전트), 김영근(대전시티즌 스카우터 및 코치), 최원권(대구FC 코치), 이슬기(이랜드FC 스카우터), 김원섭(축구아카데미 코치), 김병채(FC서울 유스팀 감독), 김정찬(충진고 감독), 이광재(현풍고 코치), 최순호(포항스틸러스 감독) 등이 참석했다.

전종호 판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축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시합을 가졌다는 것에 가슴 벅차했으며, 이는 가슴ふる울만한 감동을 선물했다"며 "이러한 재능기부 행사가 계속 추진돼서 좌절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구선교회는 2001년 4월 박애늑 목사와 김순구 목사, 이영표, 김동진, 최태욱, 최원권, 송종국 등 선수들이 모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까지 6회째 축구재능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17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7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0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제1회)



2016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7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 한교연, 포항지진 피해민 위로 방문

포항시에 1천만 원 성금도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1월 27일(월) 포항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고동관은 이재민과 포항시민을 위해 기도하고,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강덕 시장에게 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한교연 임직원 등 20여 명은 포항지진 피해민들의 임시거처인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기도했으며,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차를 대접하고 있는 포항기독교연합회 자원봉사자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또한, 건물 외벽이 붕괴된 한동대학교를 둘러보고 조속한 복구와 함께 기독교대학인 한동대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며,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영광교회를 방문해 담임 김대원 목사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3시 20분에 포항시청을 방문, 이강덕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교연 임원들은 한국교회가 포항 시민과 특별히 재난당한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고, 그런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



지 않고 달려와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지역민들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며,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포항 방분하기 운동을 전개해 준다면 위축된 재래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피해민 뿐 아니라 포항시민 모두가 이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으며, 황인찬 목사(범인이사)가 포항시민과 시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교연 포항지진 피해민 위로 방문에는 경북기독교총연합회(회장 우종휴 목사) 임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교연은 1차로 1천만 원을 지진피해복구 성금으로 포항시에 전달했으며, 회원교단 교회의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2차로 성금을 보내기로하는 한편 회원교단과 교회를 대상으로 포항시민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포항방분 행사와 과메기 등 포항 특산물 주문하기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사)교진추,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오랜 연대설과 우주·지구 진화에 관하여

반 진화론 학술 단체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사)교진추)는 오는 12월 9일(토)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교과서 내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라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교진추는 “교과서는 학생들의 진리 탐구와 정인적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도서이며, 특히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의 가치관, 도덕관 등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기원론의 근간이 되는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재조명하여 교과서 진화론의 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였다.”라고 학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두 가지 요인으로 '진화론'과 성경에 진화론을 접목시킨 '지유주의 신학'을 들 수 있다는 조셉 톤(Josef Ton)의 주장을 한국 기독교계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록 틀린 사계지만 과학적 사계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계설(대연대측정법, 상대연대측정법)을 갖고 있는 진화론은 생물 진화의 본체점들을 모두 오랜 연대로 덮어 버릴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임변삼 박



사(사)교진추 교본)는 순수한 학술적 관점에서 교과서 내의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 진화에 대한 중요 주제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원론을 다루는 과학 교과서 일부 내용의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는 물론 유신진화론자들에 게도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 동성에 합법화 여성가족부 정책 강력 반대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성명서 발표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11월 30일(목) 공화문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관련 기본 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할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는 물론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장관이 헌법을 따르지 않고 또 법률을 정면 위반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도전하고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적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을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개헌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조정하는 일에앞장서지 말기를요구합니다.

셋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정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지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 11. 30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총 233개 참여단체)

## 월드뷰티헨즈, 뷰티서비스지원 행사

서울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봉사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부공원복지사업소 공원이과가 주관한 '월드컵공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랑나눔' 행사가 지난 11월 24일(금) 오후 2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노을여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씨월드뷰티헨즈(WBH) 이사장 정한일 회장 최 에스더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는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춘사진 촬영을위한 헤어, 메이크업 등의 뷰티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함께 협력한 사진봉사단체인 바라봄은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족석에서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가졌다.

행사는 (사)월드뷰티헨즈 정한일 이사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권오혁 이사(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교수)와 김연미 네일아티스트, 조서연 팀장 등을 비롯한 한성대, 건국대의 뷰티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미국 시애틀에서 뷰티와 헬스 분야 융합 학문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WBH 회장 최 에스더 교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시애틀에서 어렵게 유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미국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뷰티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 주한 이스라엘 대사, 포항에 구호물품 기증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지난 11월 28일(화)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호 물품은 다문화가족과 넉넉하며, 대피소 생활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포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하임 호센 대사는 이강덕 포항 시장과의 면담에서

“포항은 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방문했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시작 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우리의 마음에 비하면 드리는 물품이 참 작지만, 대피소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돼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하임 호센 대사 일행은 한동대학교를 방문해 장순흥 총장, 학생들과 격려 미팅을 진행했다.

## 아세아신대,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인도 확·포장 공사로 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국제적이고 교회연합적인 대학으로 1974년 개교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학부과정으로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가 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서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편, 양평군청의 군도12호선 복포-아신간 인도 확·포장 설치공사로 오랜 주민들과 학생들의 숙원이 해결되었다.

그간 인도가 없거나 매우 협소하여 통행 길의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군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의 확·포장을 마쳤다.

이번 공사를 통해 그간 보도가 없어서 불편과 안전의 위험이 있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아신역에서부터 학교에 이르는 안전한 길이 조성되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 성령님의 기뻐하심으로 놀라운 역사 체험

할렐루야! 먼저 귀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진리등대교회 서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30일~12월 1일까지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 날짜를 정하고 보니 성령님의 기뻐하심으로 저희에게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11월 26일 주일,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예배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몇 달 전에 노병에서 전도할 때 박영수 목사가 가르쳐준 가족세트전도로 영접시킨 남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분이 말하길 “교회간편이 허술해서 이사 간 교회 같기도 하고, 이사 안한 교회 같기도 하였는데.. 올라오니 교회가 있네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 그 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 가면서 “제가 간편을 해드릴 테니 견적을 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니 바로 간편비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간편이 생겼습니다.

가족세트 전도를 통해 만난 이 남자는 부산사람도 아니고, 우리교회 앞에 재개발하는 곳의 건설회사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다녀본 경험도 예전에 잠깐 다닌 것이 전부이고 직분도 받은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수 목사가 현장을 사수하라고 하였는데 시키는 대로 했지만 평소와 전도하러 나가서 영접을 시키는데 그 중에

서 꼭 해야 될 사람들을 놓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놓쳐버린 한 사람을 만나서 박 목사가 바로 영접을 시키고 이틀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전도하러 다닌다고 했지만 제가 약해서 영접을 못시킨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나니 얼마나 기쁘지요!

제가 못하는 것을 박 목사를 통해 하나씩에서 해주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주에 이분이 교회에 올 것이다”라고 하니 더 기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박영수 목사가 22명을 영접시키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오늘 오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여 그대로 따른 저는 6명을 영접시켰습니다. 이 일을 박영수 목사에게 전화로 전하니 “2명을 더 전도해서 30명을 채워라”고 하였는데 적중하였습니다.

지금은 해가지는 저녁시간이고 조금 있으면 금요일이 되었는데..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전도 2명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했는데 2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은 너무나 감격에 박찬 것이었습니다. 영접기도 30명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 진리등대교회 서유진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 전속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홍해자는 오는 12월 1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제주대학교 해대식 교수의 지휘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찬양하라’, ‘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 등 11곡을 선보인다. 특별출연으로는 바리톤 허종훈과 소프라노 전지영 그리고 페르마타 앙상블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제주방송이 제주의 교회를 섬기며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영상선교사역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표로 2013년 창단된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은 물론, 도내 음악인들 간의 상호교류와 연주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의-064 724-9191)

##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 위해 희망을 밝히다”

기아대책 소외계층 겨울나기 희망온 캠페인 점등식 개최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소외계층 겨울나기 희망온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온 점등식’ 행사를 지난 11월 27일(월)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온’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개보수가 시급한 국내 가정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기아대책의 대표 캠페인이다. 점등식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온기를 모아 희망의 불을 밝히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낙중 기아대책 서울연합후원인사회 이사장(해오름교회 담임목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서상목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써온 기아대책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올해 희망온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기아대책은 높은 난방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



에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2003년 ‘사랑의 21℃’라는 이름으로 난방비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 ‘희망온’으로 캠페인 명을 변경해 15년째 진행해 왔다.

올해는 ‘동우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소개했다. 올해 일곱 살인 동우(가명)는 찬바람이 들이치는 단칸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다. 동우의 엄마는 당뇨, 고혈압, 공황장애 등 여러 병을 앓고 있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라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 체험담

안산거주 김○○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풍치**를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골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자” (빌 2:2)

♡♡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할 때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힘써 오신 여교역자님들을 위해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올림 -

**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오후 5시  
**장소** | 일산벤엘교회(조영란 목사 시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64 (지번: 탄현동1491-4)  
(전화 031-922-5004, 010-7477-8018)  
**일정** | 1부 식사, 2부 예배, 3부 지부별 불링(준비물은 공문을 참조바람)  
**대상** | 전국 여교역자 전원  
**주관** | 여교역자국  
**문의** | 국장 한순남 목사(010-2853-8190), 차장 김바울 목사(010-8652-9340)  
**후원계좌** | 농협 352-1333-4784-13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설파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 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독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 오일, 꽃라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설파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동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온전사/수험생/컴퓨터작업시)

###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피부질환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 나무오일, 유향유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피부질환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시어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 ⑨ 젤렌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 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워터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 71개국 성서공회에 66만 4천여 부의 성경 기증

## 대한성서공회, 제128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성서공회 제12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화), 오전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어 대한성서공회의 교단대표로 박태식 신부를 이사에 선임하고 기독교한국루터회의 남상준 목사를 새로운 이사에 보선했다.

이어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예장통합), 이정

현 목사(예장대신)가 선임되었으며,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희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 이만영 장로, 박철영 장로가 선임, 감사에는 최규완 장로가 선임됐다.

이날 권의현 사장은 보고를 통해 “금년 미지립 성서기증사업을 세계 71개 성서공회에 66만4천여

부를 기증했다.”고 보고했다. 권 사장은 또 국내 성서보급은 지난해에 비하여 117,227부가 증가한 594~344부를 보급했으며, 해외는 118개 나라에 210개 언어로 총 6,003,462부의 성서를 해외로 보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회에서 출판한 어린이용 그림성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여러 성서공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영어, 불어 등 주요언어 외에도 라오어·크레올어 영어대조 성서로 출간 됐으며, 스와힐리 영어대조, 태국어, 네덜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출판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는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가 ‘말씀을 먹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 CTS 창사 22주년 기념 감사예배

동역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5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서의 국내 최초로 개국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올해로 창사 22주년을 맞았다. 12월 1일(금) 창사기념일을 맞아 서울 노량진동 CTS컨벤션홀에서 <CTS 창사 22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86개 공교단이 연합해 세운 CTS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마련된 감사예배에는 CTS 운영위원회 권오철 위원장, 예장중앙총회 이진호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김대희 총회장,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양호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예장, 호헌 총회 등 각 교단 대표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감사의 말씀을 통해 “지난 22년 동안 복음방송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어려울 때,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동역해주신 사랑하는 임직원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CTS는 그동안 순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와 국가 미래인 다음세대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력해왔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과 함께 전 세계 복음전파를 위한 글로벌 영상 선교 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께 하듯 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CTS

공동대표이사 전병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순수복음방송 CTS가 22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라고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자”며, “마음의 중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뤄지도록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 사설

## 낙태(落胎)는 분명 「살인행위」

최근에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으로는, 내년도에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 4로 ‘낙태죄’가 ‘합헌’임을 유지한 바 있는데, 현재는 새롭게 바뀐 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에서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을 거처기도 한 사람이다. 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선별적 살인’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행 낙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낙태 문제는 그 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낙태 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고, 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경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낙태는 분명 ‘불법’이며, 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낙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6만 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 사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이는 ‘살인’이라는 인식도 지켜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기왕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음을 감안하여,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낙태가 불법이며,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기를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역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명실상부 목회자로서 정예의 과정을 마친 총회신학교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다.

총회 목회대학원은 18일 졸업식을 갖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졸업생들은 이제 목회현장에서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목회자로서 점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성령충만한 지성을 겸비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변화의 시기에 점차 교단과 교계를 이끌어갈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많은 졸업생들이 목회 임지를 찾아서, 각양의 사명과 그릇대로 목회의 일선에 나서게 될 것이다. 사명자로 기본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은 목회현장에서 새로운 만남과 사역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졸

업생 모두에게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

신학교에 첫발을 내디뎠던 첫 발걸음과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찌하듯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열매맺도록 도와주신다. 졸업생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맡겨진 일에 크게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항상 품으로 실행하자. 세상은 언제나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모두들 목이 마르고 타들어 가고 있다. 새신랑 · 신부와 같은 새 출발의 전도자들 모두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한 자기개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성탄의 기쁜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2017 대한민국 성탄축제’ …서울광장에 대형 성탄트리 불 밝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백석대학교(총장 정종현 이하 ‘백석대’),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 이하 ‘백석예대’)는 12월 2일(토) 서울광장에서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다.

CTS를 통해 2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된 이번 <2017 CTS 대한민국 성

탄축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와 찬양,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케플록 연주 등의 다채로운 순서들로 채워졌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누가복음 2장 9-14절)’라는 주제로 성탄메시지를 전한 백석대 총장 정종현 목사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

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2017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개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며 “기쁜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기뻐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 다메섹교회 ACADEMY

요한복음 2장 13-25절 성전을 열라

1장: 말씀이 내안에 거하면 성전이 됩니다. 51절 인자 위에 오르라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2장: 혼인잔치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사건은 처음 표적이며, 으뜸이며, 원리입니다. 혼인잔치의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규례에 따라서 6개의 물동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 끝내고 짐사들이며 주니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관례의 율법 규례, 제사가 물을 아귀까지 채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번째 새로운 변화,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라 할 때 시간이 되어 변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장: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표적관계, 규례는 끝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규례가 끝나고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 말씀대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책망하셨습니다. (요식, 형식의 반복)

13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 안에 소, 양, 바들기 등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고 상을 엮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된 즈음 공생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대대적 행사로 분주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제사를 위한 짐승들이 가득하여 이를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마음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쫓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육적인 속성, 물질의 상을 엮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본질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규례는 오래되면 부패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같은 말쟁하여도 속은 썩어갑니다. (속 14:21)

하나님의 집은 인격적 집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 장사꾼이 판을 치고 있었기에 얕은 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일을 도모하여도 안 됩니다. 기도 대신 장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대신 교회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짐승의 모양, 형상이 우상이라 하였고, 짐승의 짐을 떨치고 인격체계를 세우려 짐승 매매를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세우시려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된 교회입니다. 장사는 물질이고, 물질은 인간의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인생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제사들이 성경 말씀을 회상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전 안에 소, 양, 바들기를 쫓았듯이 시편 69편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회상이 납니다. 사도요한이 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청결사건에 기적을 요구하지 구원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청결사건에 걸 맞는 표적을 보여 달라 할 때, 주님은 이 성전을 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령강림까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강림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는 율법과 규례가 십자가로 끝이 나고 새로운 영의 세계로 부활승천, 성령강림시대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18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8년 1월 8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2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회 무 목사 엄 기 설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목 회 대 학 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1. 지원 자격

| 학 과  | 과 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석사<br>(M.M/<br>Master of<br>Ministry) | 2년<br>(4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li> <li>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li> <li>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li> </ul> |

####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 임종달)

####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신 학 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 교육목표

-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br>(신입생) | 4년8학기<br>(140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li> <li>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li> <li>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li> </ul> |
| 신학과<br>(편입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li> <li>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li> <li>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li> </ul>      |

####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담임목사 추천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건강진단서(HIV포함)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30,000 원(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 임종달)

####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